

2024. 10. 29.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제 목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월 29일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하여 축사하였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법률가와 국민의 소통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축사 말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축사 전문 [별첨] 참조

[별첨]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법률가 회원 여러분!

한국법학원의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충돌은 통상,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법률가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역할과 사회적 필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법학과 법률 실무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법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종전의 법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설계하려는 노력은, 우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근본규범인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동등한 존엄을 가진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음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 전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가의 근본적 책무입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이유로 직업적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법률가의 역할은 갈등이나 분쟁과 따로 떨어질 수 없고, 그렇기에 법률가는 의심받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지, 국민에 봉사하고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국

민의 합리적 의심은 우리 사법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까지도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가와 국민의 소통이 일방적이거나 편향되게 이루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 실무가와 이론가 사이에, 현재의 법률가와 과거의 법률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을 예로 들자면, 비슷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하는 재판은 다양한 시각을 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가와 이론가의 고민과 관점, 과거의 선례에서 적시한 현실과 변화하는 시대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평의의 장에 모두 제시되고 치열하게 논의될 때, 즉,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거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국법학원은 1956년 창립 이래,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성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역시 우리 법률문화 발전의 소중한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률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